

## 반인권,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 두둔한 국민의힘 정영환 공판위원장은 사퇴하라.

### -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“동료시민”에 여성은 없는가 -

국민의힘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인가.

국민의힘 공판관리위원장에 임명된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91년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.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여성, 반인권적 판결이다.

술집에서 일하는 접대부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뿌리치고 탈출하면서 상처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“비록 피해자가 겹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, 피해자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”며 무죄로 판단했다.

흥기로 협박까지 당하는데도, 피해자 여성이 겹으로는 거부하지만 속으로는 성행위를 원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경악할 대목이다.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 대표적 반여성, 반인권 판결로, 심지어 흥기를 사용해 협박한 행위까지 사실상 무시하고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.

판사는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고도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. 법원마저 강자의 입장과 감정을 잣대로 판결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없다.

이토록 참담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자를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책임지는 중책에 임명한 것은 여성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른 가해이다.

임명권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, 입장을 밝혀라. 정 위원장의 문제만이 아니다. 성평등운동을 문제시하면서 강간 운운한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서조차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.

박은식 비대위원은 과거 SNS에서 “페미니즘? 전쟁 지면 집단 ㄱㄱ(강간)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뭘 의미가 있는데?”라고 주장했다. 또한 “남성성에 대한 존중,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”라고 주장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의 SNS를 비공개 처리했다.

불과 얼마 전 국민의힘이 영입인재 1호로 이수정 교수를 입당시키며 밝힌 여성폭력에 대한 의지가 참으로 무색해진다. 국민의힘은 진정 여성폭력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.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“동료시민”에 여성은 없는 모양이다.

공관위원장의 임명은 그 당의 총선 전략이며 미래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행위이다.

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여성인권을 후퇴시킬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정영환 위원장과 박은식 비대위원을 물러나게 하라.

2024년 1월 8일

**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(위원장 이재정)**